

우리 時代의 建築家 그 存在形式에 關하여

尹 承 重

(1)

10여年前과 比較하여 볼 때 최근 몇년간 우리 社會와 都市의 發展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거대한 빌딩이 쉽게 기획되어 새로 세워지고, 한강변의 高層 아파트群의 숨가쁜 建設現場은 경제 성장의 기적을 실감나게 한다. 都市뿐만 아니라 全國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간선도로망과 그 연변의 風景들, 觀光地 구석구석까지 미친 環境改造의 손길은 대산업기지들의 거대한 모습과 함께 오늘의 우리 社會의 發展의 징조들이다.

우리 社會가 경제 지향적인 성장에 총력을 경주해온 결과로서 오늘과 같은 發展의 모습을 얻었고, 國際社會의 競爭을 겨냥하며 「풍요한 社會」의 實現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1978년의 現實은 매우 밝은 未來를 약속받은 듯하다. 이러한 富의 성장은 결과적으로 建築의 수요로 나타나며, 「풍성한 建築」의 時代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建築을 담당하여 일으키게 될 建築家들에게는 더욱 고무적이며, 기대에 찬 未來가 될 듯 하다.

1965년의 어떤 統計에서 서울의 家口당 平均 住居面積이 3.7 坪이었음과 1978년 상반기 住宅의 平均許可規模가 42坪(부동산 이상 경기에 의한 일시적 현상일 것으로 보이지만)이라는 事實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最近 2~3年間完成되거나 계획중인 오피스, 호텔, 문화회관, 특히 민간 대단지아파트들의 規模의 방대함이나 사치스러움들에서 一見 「풍성한 建築」의 實體를 보는 듯 하다.

이런 오늘의 時點에 서서 우리는 두가지 側面에 注目해 둘 必要가 있다. 하나는 매우 肯定的인 觀點으로, 우리의 建築技術의 能力과 經驗의 蓄積이 상당한 水準에 이르러, 이러한 量의 공급이 可能해졌으며, 자신을 갖게 되었다는 事實이다.

10여년전, 조선호텔이나 종합청사를 주관하였던 當局이 外國建築技術에의 依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의 사정을 인정한다면, 이런 大規模建築이 조용히 實現되고 있는 오늘의 現實은 크게 비교될만한 것이다.

이렇게 知識과 經驗의 蓄積들이나 建築家 그룹의 성장은 「풍요한 建築」을 向한 매우 希望的인 일면임이 분명하다. 다른 또 하나의 立場은 이렇듯 활기에 찬 「建築家」들의 作業이 結果적으로 좋은 建築으로, 그래서 인간의 참다운 삶의 環境으로, 그래서 우리 時代의 창조적인 文化로 되어가고 있는지라는 의문의 제기에서부터 비롯된다.

建築은 곧 「人間의 진정한 삶의 틀을 만들어 내는 作業」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주어진 자연환경에 구속된 存在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어 자연에 예속되지 않고 스스로 생활환경으로서의 文化를 창조해 가며 자연환경과 文化를 통합한 그의 삶의 세계에 있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의 主体이며, 생활환경으로서의 文化를 창조할 責任이 주어진다. 따라서 建築이 스스로 生活環境과 文化를 창조해 가는 과정이며, 인간의 인간다운 삶의 틀이라는 주장이 동의된다면, 建築을 잉태시키는 建築家에게 생활환경으로서의 文化를 창조할 責任이 있음이 분명해진다.

이런 態度에서 오늘의 現實을 바라볼 때 量的, 技術的 充足에도 불구하고 매우 不安스런 구석이 있음을 볼 수 있다.

建築의 作業은 「인간의 要求」에서 비롯되어, 이를 充足시켜야 될 일차적인 機能을 갖는다. 또한 合目的이며, 合理的인 知識과 技術에 의해서, 結果적으로는 가장 경제적으로 要求되는 바의 機能을 갖도록 建築하는 것도 建築家의 한 課題이다. 그러나 建築의 投資者(Owner), 기획자(Client)들의 要求를 解決시키고 동시에 또는 그와 併行하여 그 建築이 속하는 마을과 都市와 그리고 그 社會속에서의 價値와 아름다움을 부여하려는 의지, 그리고 해있지도 않으며, 누구인지도 모르는 利用者들(Users)定을 아끼는 態度를 그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오늘의 狀況위에서 오늘의 建築家가 자신의 삶을 사는 한 人間으로서, 人間을 위하여 또 그들의 社會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이 論考의 요지이다.

<2>

오늘의 사회는 분명 技術文明의 사회이며 또한 物質中心의 사회이다. 이 길을 先發하여 엄청난 富의 사회를 이룩한 先進諸國의 본을 따라 개발도상에 있는 우리 사회도 物質的 富를 지향하여 合理的, 能率的, 實踐的 사고와 행동이 가치 規範이 되는 그러한 사회로 되어가고 있다. 産業社會로의 成長은 필연적으로 建築과 도시의 수요를 급속히 팽창시켜「풍성한 建築」을 구가하게 되었다. 現代社會가 要求하는 大量需要, 大量生産은 建築의 테크놀로지, 規格化, 새로운 工法들이 建築家의 作業의중, 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또한 複雜한 社會的 要求를「社會를 위하여」把握하는것, 끊임없이 새로운 知識과 情報을 管理하는 것, 그리고 合理的인 經營에 까지도 그들의 作業領域으로 擴張되었다.

即 建築家は 여러분야의 테크놀로지를 종합하는 立場에 서게 된 것이다.

建築은 우선 利用者들인 인간의 要求를 充足시키는 데서 부터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人間의 要求란 매우 다양한 形態로 주어져서, 즉 생물인 인간으로서의 「생리적 要求들」, 사고하는 存在인 인간으로서의 「心理的 要求들」 사회적 存在인, 또는 群化하는 존재인 인간으로서의 「社會的 要求들」, 그리고 經濟的 존재인 인간으로서의 「經濟的 要求들」들이 그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실제로 한 개체로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群을 이루어 集團으로서 存在하기 때문에 「人間의 要求」에 解答을 주기 위하여 人間의 要求에 接近하여 파악한다는 일의 어려움이 생긴다. 持히 現代와 같은 「巨大한 社會」속에서 한 部分으로 存在하는 한 인간의 實存的 要求는 무시되어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現代建築의 디렘마가 있다. 人間의 要求의 總和가 社會의 要求이며 結局 人間의 要求라는 立場을 取하여, 인간의 行態를 客觀的으로, 統計的으로 觀察하여 規定하려고 시도하는 行態論的 接近方法들이나, 人間의 行態나 性格이 그들의 環境에 支配되어 必然的으로 결정된다는 論理에 근거한 決定論的 接近方法들이 實証的, 科學的이라는 위안을 준다고 해도, 結果로서 태어나는 人間은 「平均的」이어서 아무도 닮지 않은 生소한 人間일 수도 있다는데 함정이 있으며, 建築家의 디렘마가 시작되는 것이다.

人間은 社會에 태어나서 自我를, 자신의 특수한 퍼스널리티를 形成해 가는 과정에서 이미 다른 사람들(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인지, 감상, 規範的 行爲의 모든 면에서 人間은 文化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人間의 行動이나 思考는 필연적으로 그 先行條件의 結果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히 물질중심적인 오늘의 巨大한 社會속에서 미아가 된 「最後의 人間」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努力이 오늘의 建築家에 주어지는 또하나의 존재양식이 된다.

<3>

이런 디렘마에서 現代建築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人間中心的인 建築이라고 말하고 싶다. 人間中心的 이려는 追求는 예로부터 끈질기게 계속되어 왔다. 르네상스는 自然과 神으로부터 人間中心을 求했고, 近代의 歷史는 機械에 對해서 人間中心이려는 努力을 보여 주었다.

오늘의 巨大한 社會는 그 社會를 構成하는 人間들의 의지를 벗어나서, 그 社會自体로서 巨人이 되어버렸으며, 人間은 또 다시 人間을 배반한 巨大한 社會에 對항하여 「人間回復」을 爭取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社會는 본래 人間들의 삶을 위한, 삶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전체라는 것은 부분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므로 社會는 전체로서의 價值規範과 체계를 갖게 되며 그개개의 人間의 要求와는 對立적 關係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이룩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날 대다수의 人間들이 처한 現實을 묵묵히 받아 들이기는 힘들 것이다. 물개성으로부터 자유로우려는 의지가 人間의 回復이며, 積極的으로 表現하면 인간의 창조이다.

이것은 혼자 하는 作業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하는 作業이어야 한다.

④

오늘의 풍성한 建築의 時代에 建築家 低刃確保가 또 하나의 重要한 問題로 제기된다. 여기에서 建築家라는 것은 勿論 해야할 바의 「무엇」을 파악하고, 實踐하는 경우에 限定하여 말하는 것이다.

都市的스케일 巨大한 프로젝트를 훌륭히 리이드할 수 있는, 또는 世界史를 빛낼 위대한 建築을 잉태시킬 大建築家가 기대됨은 말할 것도 없지만 都市의 뒷골목에서 人間의 진정한 삶의 空間을 만들어 내며, 마을의 구석까지 建築의 즐거움을 주는데 관심을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全都市의 實體는 매우 추상적인 것이어서, 한 시민의 일상적 삶에 있어서는 거의 무관한 것이 된다고 볼 수 있다. 全都市의 이상적인 마스터플랜보다는 일상적인 생활 반경내에서의 建築物들과 이들 建築物들이 연출해 내는 外部空間의 形態나 분위기들, 즉 거리의 風景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지며 親密한 關係에 서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親密하고 頻頻하게 接觸되기 때문에, 都市의 環境과 생활의 활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都市속에서의 이런 部分的인 空間들은 그 空間의 장소성, 形態, 크기, 空間의 텍스추어, 공간과 공간의 흐름, 그 공간안에서 움직이고 행위하는 활동체들, 그리고 분위기를 만드는 빛과 색채와 장치들에 의하여 인식되며, 우리들에게 한 특정한 場所로서 記憶되어 인간의 생활환경이 된다. 개개인들은 이런場所들을 자신의 생활 사이클에 의해서 連續的으로, 說話的으로 파악하게 됨으로서 都市는 무수히 많은 實體를 갖게 되는 셈이다.

現代에 있어 都市와 建築의 窮極的인 명제는 그 속에서 삶을 갖는 인간들에게 창조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創造的 環境의 都市는 多樣性을 가진 選擇의 自由를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建築과 空間들은 人間과 그 環境사이에서 무한히 많은 對話의 可能性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都市의 여러 地域들은 一樣하지 않으며, 그 場所의 고유한 성격, 자연지세와 경관, 주민들, 문화적 유산등의 상호작용을 最大로 許容시켜야 한다. 結局 人間生活의 創造的인 環境으로서의 建築과 都市는 한사람 또는 몇사람의 위대한 建築家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場所들의 主人인 市民들과 이에 協力하는 수많은 建築家들의 창의적인 努力의 結晶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명비판가 루이스 멤포드는 市民들이 都市에의 귀속감과 긍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問題이며, 새로운 환경에 대한 價值觀의 變化와 理解心을 키울 수 있는 教育이 절대적으로 必要하다고 강조한다.

파리가 가장 아름다운 都市로 그 전통을 길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파리 시민들(建築家を 包含한)의 愛情으로 부터 비롯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들의 서울이 現代都市로의 進行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混亂은 市民들의 愛情의 대상이 되는 文化的 遺産이 적은 것이며, 市民들에게 어떤 理想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서울의 오늘이 있기 까지 불운하게도 두번의 不幸한 變身을 감수해야 했다. 閉塞의 社會였던 王朝가 끝나고 日人들이 近代化를 企圖했을 때, 그들은 意圖적으로 새 都市의 中心機能을 옛 都市와 중복시켜 놓음으로서 아름다운 옛 都市(모두들 그럴것으로 생각한다)는 사라져 갔다.

外國의 다른 傳統的인 都市들의 發展과정을 눈여겨 볼 때 참으로 不幸한 일이었다. 두번째 不幸은 6·25 戰禍로 그 近代化된 都市의 대부분이 또다시 破壞된후 서울은 그 가장 가난했던 時期에 우선의 生存을 爲하여 무경험과 무질서 속에서 재건되어 오늘의 서울의 첫출발이 된 것이다. 사라진 옛서울에 對한 愛情과 자랑스러움이 있었거나, 都市生活에 對한 누적된 體驗을 갖고 있었으면 오히려 가장 理想의인 새 都市로 變身시킬 좋은 機會일수도 있었다.

이런 歷史의 過程을 통해서 배우는 바와 같이 市民개인의 높은 水準의 要求와 참여와 倫理的인 가치관위에서 해야할바의 「무엇」을 가진 建築家들의 低辺이 절실하게 必要함을 알게된다. 물론 이런 教育方法은 實物을 통한 經驗으로부터 얻은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도적인 建築家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보겠다.

여기에서 建築家자신에게는 다른 하나의 숙제로 남는다. 인간과 그들의 社會의 要求에 명쾌한 解答을 주는 것과 함께, 그들의 作業이 藝術이 되어야하며 認識의 對

象이되는 形態와 空間, 그리고 분위기를 연출해 내는 일 뿐이 아니라, 그속에 內在하는 後景의 論理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마르셀 브로이어의 말처럼 「사람들은 建築같은것은 알지도 못하며 그들이 보는것은 주위의 風景이고 디테일한것 뿐」인 것이다. 한가지 더 인용해 두고 싶은것은 모든 藝術이 겪는 問題에 관한 아놀드 하우스의 다음과 같은말이 시사하고 있는 내용이다.

「우리의 과제는 다수대중의 現在시야에 맞게 藝術을 제약할것이 아니라 대중의 시야를 뿔수 있는한 넓히는 일이다. 참된 藝術理解의 길은 教育을 통한 길이다. 少數에 依한 항구적 藝術獨點을 防止하는 方法은 暴力的인 藝術의 單純化가 아니라 藝術的 判斷能力을 기르고 訓練하는 데 있다…」

5

이러한 時점에 서서 反省해 볼 것은 진정한 意味에서의 「建築家教育」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이다. 어떤 意味에서의 우리의 現實은 建築家라는 概念조차도 매우 모호하게 쓰여지고 있음을 본다. 오늘의 建築家は 最新의 科學技術情報에 通達하고 經驗한 「專門技術人」이며 社會와 文化를 洞察하는 「知性的知識人」으로서 인간과 그들의 社會의 要求에 接近하여 그 對立關係를 調和함으로서 인간의 창조적인 삶을 낳는 그 環境을 구체적인 生活의 場所即 形態와 空間으로 社會에 돌려주는 社會的職分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建築家は 이 作業을 통하여 歷史속에서의 現在를 主体的으로 把握하려는 態度和 單純한 技術의 集合체가 아닌 그 이상의 「무엇」을 만들려는 執念이 內在할때, 이들의 作業은 「藝術」이 되며, 그時代의 文化로서 存在意味를 갖게되는 것이다. 建築家가 古典的인 存在方式에서처럼 全人的이며, 고고한 藝術家로서 召命받은 者로서의 特權을 누리던 時代와는 다르게 하나의 專門職으로서의 社會的職分을 갖게되었다 하더라도 人間과 그들의 社會를 爲하여 「창조적 삶을 매개하는者」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앞서의 문제로 돌아가 어떻게 專門職業人이며, 知성과 예지를 지닌 창조적삶을 매개하는者로서의 긍지를 갖는 建築家를 많이 키워낼것인가에 關하여 몇가지의 方向을 제시해 둔다.

첫째, 지도적 建築家들이 오늘의 社會를 向한 明快한 지도이념과 그들의 作業을 통한 진정한 建築의 地平을 보여주는것과, 大學의 門을 開放하여 많은 지도적인 建築家들이 直接 大學教育에 參與하도록 유도하는것, 프랑스의 에콜·드·보자르나 미국의 우수한 대학들에서처럼 現역 建築家들에 의한 設計스튜디오에서의 實物을 통한 教育의 기회를 크게하는것.

둘째, 大學의 커리큘럼을 「建築家教育」을 목표로하여 재편성 하는것과 더 나아가서, 몇몇 대학들을 建築大學

(School of Architecture)으로 昇格시켜 特히 建築家を
길러내는 專門教育기관을 지향하는 것.

세계, 大學教育過程以後에 建築家教育 또는 수련을 爲
하여 大學校育技能의 영역을 확장하고 이를 爲하여 大學,
大學院, 科學院 같은 專門教育기구에서 建築都市의 設計
用役이 可能하도록 許容하는 것.

이 경우 教授들의 大學研究機關을 통한 프로젝트의 용
역은 教育과 研究를 통한 社會奉仕의 次元에서의 倫理가
전제될 것. 이 研究, 修練過程을 통하여 프로젝트에 의한
建築家修業을 쌓은후에 專門의 제도와 유사한 자격을 부
여하는 것들.

이상 몇가지 接近方法은 물론 現行法制度의 改善을 전
제로 하며 建築家와 建築家教育의 특수성이 大學에서 배
제되어있는 現實이 매우 근시안적 사고에서 출발하고 있
음을 말해두고 싶다

<6>

오늘날과 같이 建築家に 많은 機會가 주어진적이 없었
다. 先進國들에 依해서 「先發中進國」의 地位를 확보한 이
産業化社會는 지속적인 高度成長 人口增加 急速한 都市
化를 겪으면서 광범위한 都市再開發, 맘모스빌딩들, 大單
位 集團住居단지들, 大單位産業基地等 일찌기 經驗하지
못했던 大型프로젝트들이 속속 建設中에 있다.

또한 「새마을」을 理想으로하는 農村마을의 再構成이
當面의 과제로 등장하고, 中東建設붐에 힘입어 建築의 國
際社會로의 데뷔가 實現되고 있는 中이어서 이런 社會的
要求는 필연적으로 建築家の 作業이나, 設計組織에 새로
운 存在形式의 도입이 先行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70年代 후반에 이르러 몇개의 設計組織이 大型化 되어있
고 또한 大企業의 資本力을 배경으로한 綜合엔지니어링
그룹들이 發足되어 있다. 이 大型 設計組織들은 방대한
人力資源을 기반으로하여 신속한 科學技術知識의 도입,
情報의 管理, 經驗의 축적들과 能率의인 프로젝트의 소
화능력을 갖추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海外에서 教育과 經驗을 쌓은 中堅브레인들을 대
담하게 초빙하여 活動의 機會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들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家築家組織
으로서의 새로운 存在形式을 갖지 못한채 急速한 팀의 확
대는 두가지 面에서의 限界를 보여주게 된다.

하나는 팀으로서의 作業의 成果에 關한 問題이고 다른
하나는 이 組織이 技術知識의 綜合의 次元을 넘어 建築家
로서의 理念을 가지게 되느냐하는 問題이다. 이것은 이
組織을 領導하는 建築家の 力量에 속하는 것이겠으나 全
設計組織이 곧 하나의 建築家라고 기대하기보다는, 建築
家和 그의 作業에 協力하는 小單位의 建築家팀의 集合體
로서 把握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存在形式이 可能하도
록 제도적장치가 되어있음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진다 바
꾸어 말하면 백명쯤의 作業協力者를 거느리는 建築家를
상상하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建築作業팀을 가진 10명쯤
의 建築家가 한 組織에서 活動한다는 뜻이되겠다. 現行
法制度및 운영상의 모순은 세명의 協力者를 갖는 팀이나
백명의 協力者들로 구성된 大組織이 동등하게 취급되어
똑같이 法の 구속력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最近에 設計組織의 大形化를 지향하여 개정된 法에서
合同事務所의 개념을 도입하여 大型프로젝트의 責任을
문고져 한것은 理解하기 곤란한 일이다. 建築家들이 스
스로 協力하여 함께 作業하는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
나, 建築家の 社會에 對한 責任은 무한한 것이어서 함께
責任질 수 없는 性質의 것이다. 이때의 責任은 法이 定하
는 테두리안에서의 것을 뜻하는것이 아니라 그가 속하는
時代의 社會에 對한 義務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들의 作業이 그 建築의 投資者나 企圖者들의 要求에서 시
작되지만 建築의 궁극적인 主人은 그 都市와 市民이므로
그 社會와 人間에 奉仕하는 그래서 창조적인 文化를 만
들어 내는 차원의 作業은 法에 依한 규제로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建築家 自身들이 참된 職業精神과 낚는者로
서의 執念, 그리고 實踐으로서만 可能하다고 생각된다.

建築家